

홍천의버신문

건강한 노후 · 활기찬 노후 · 일하는 노후 · 행복한 노후

2022년 7월 (제98호)

발행처 홍천군노인복지관
발행인 현윤재
주소 강원도 홍천군·읍 태학여내길 80-3
전화 033-430-8700 FAX 033-430-8790
홈페이지 www.hcknowin.org/

베이비붐 세대의 삶

진단과 활로를 찾아서

지금 베이비붐 세대는 어떤가?



◇ 60년대 초등학교 소풍.



◇ 60년대 다섯 자녀 아버지의 대학졸업식.

베이비붐 세대의 현재 나이는 59세부터 67세까지이다. 60대의 거의 전부를 차지하는 인구이다. 일부는 공식적인 노인세대에 편입되었다. 노인은 역사적, 관념적으로는 사회와 집안의 어른으로서 존중되어야 할 세대이다. 그들의 지식과 경험, 지혜는 살아있는 보물창고처럼 인식되기도 한다. 아니 그래왔었다.

100세 시대에 베이비붐 세대는 어정정한 위치에 있다. 늙은이 취급을 받기에는 아직 팔팔하고, 장년이라고 보기에는 한물 간 세대이다. 아직 일하기에 충분한 경력과 능력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은 녹슨 훈장이 되어 장롱 속에 팽개쳐 진지 오래다. 오히려 그런 것들은 생존현장에서 걸림돌이 될 뿐이다.

베이비붐 세대가 직면한 개별적 상황

K씨(67세)는 학력이 대단하지는 않았지만 많은 현장 경험과 탁월한 감각으로 인테리어 업계에서 인정받던 실력자였다. 탄탄한 회사에서 임원으로 대우받으며 승승장구하고 있었다. 그는 40세가 되었을 때, 독립을 결심했다. 자기 정도의 실력과 인맥이면 쉽사리 성공할 것 같았다. 나름대로 원대한 포부를 안고 인테리어 설계 및 시공회사를 차렸다. 시작하자마자 많은 일감들이 몰려들었다. 성공이 눈앞에 다가왔다.

회사가 자리를 잡아갈 무렵 청천벽력이 내리쳤다. IMF와환위기! 공사대금은 들어오지 않고 자재상과 일꾼들은 자재대금과 임금을 달라고 아우성이었다. 그는 견디다 못해 집과 얼마 안 되는 땅을 팔아 부채를 갚았다. 그래도 아직 부채가 남았다. 회사는 공중분해 되고 문을 닫았다. 당장 갈바닥에 나왔을 처지가 되었다. 다행히 친구가 도와줘 방 두 칸짜리 집을 얻었다. 장성한

아들·딸이 있는데 방 두 칸에 네 식구가 살기는 쉽지 않았다. K씨는 먹여주고 재워주는 건물 경비 일을 구해서 나왔다. 나설 때는 참담했지만 그래도 가장으로서 이 정도 희생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것에 위안을 삼았다.

이제 내일 모레 70이다. 언제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른다. 아이들은 곧 결혼해서 나가겠지만 K씨는 이제 이런 생활이 익숙해졌고 편해졌다. 아내도 말로는 걱정을 하지만 적극적으로 말리지는 않는다. IMF를 생각하면 분통터지지만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니 어쩔 수 없다. 독립에 꿈이 부풀어 서둘러 사업을 시작하지 않고 몇 년 만 늦췄더라면 하는 후회가 수시로 밀려드는 것을 막아내기는 어렵다. 이제 임계장(임시 계약직 노인장)신세를 면하기는 불가능할 것 같다.

P씨(67세)는 중앙지의 취재기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그 당시 신문기자는 힘 있는 직업으로 선망의 대상이던 직업이다. 나름 사회의 공기(公器)인 신문제작에 참여한다는 자부심도 컸다. 그는 언론인으로서 탄탄대로를 걸었다. 신문사 부속 월간지의 편집장까지 올랐다. 그리고 정년퇴직하였다.

그에게 주어진 것은 언론인으로 평생 살았다는 명예와 얼마간의 퇴직금 그리고 후배기자들이 모아준 전별금이 전부였다. 그는 재산을 축적하지 못했다. 돈을 모을 수 있을만한 직업도 아니었고, 그렇지 않은 것이 그의 자부심이기도 했다.

그러나 퇴직 후 P씨의 삶은 녹녹치 않았다. 결혼이 늦었던 그는 자녀 또한 늦었다. 이제 겨우 큰 아이는 취직해서 자립의 길을 걷게 되었지만 둘째 아이는 아직도 학업중이다. 아내는 자나 깨나 앞날이 걱정이다.

아내도 이미 노인세대가 되었다. 우울한 아내의 얼굴이 퍼질 날이 없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건강하게 혼자 사시던 어머님에게 치매가 찾아왔다. 차마 요양병원에 보내지 못하고 집으로 모시고 왔다. 치매 시어머니의 요양까지 떠맡게 된 아내는 더욱 우울해지고 날로 쇠잔해 갔다. P씨는 가장으로서, 아들로서, 남편으로서 별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형편없이 적은 연금으로는 도시에서 살기가 쉽지 않다. 그는 이제 조금 후회하고 있다. 알량한 자부심이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를 지금 더 없이 초라하게 만들고 있다. 뒷돈을 챙길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던가. 그는 지금 집을 줄이고 외곽의 작은 집으로 이사 가거나 귀촌을 고민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 이해의 순기능

걱정거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마는 베이비붐 세대는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끼인 세대로서의 걱정거리가 사회와 가정 모두에 있다. 베이비붐 세대가 원했던 것도 아니고 그들 스스로 자초한 일도 아니다. 포기할 수 있는 역할도 아니다. 토사가 쓸려 내려와 쌓여서 독이 되어 더 이상 물이 흘러내려가지 못하는 상태와도 같다. 베이비붐 세대가 오롯이 감당해야 할 몫이다. 견디다 못해 쓰러지기도 하지만 어떻게든 버티려고 기를 쓰는 것이다.

힘들고 어려운 삶이 어찌 베이비붐 세대만의 것이겠는가! 그러나 그 어느 세대보다도 이 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고 기여한 바가 크지만 그 못지않게 짊어져야 할 부담이 많은 세대인 것 같다. 세대에서 세대로 연결되는 전통적 가족관계와 사회적 공유체계가 무너지고 막히는 뼈아프고 서글픈 상황을 이 세대는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사회적 역량을 잃어가는 베이비붐 세대가 단지 시간적 수량적 틀에 의해 정의된다면 우리는 물질주의적 사고와 판단에 함몰되는 것이요 인간적 가치판단과 사회적 순기능 가치를 너무 많이 잃게 되는 것이다.

베이비 붐 세대에 대한 이해와 공감은 단지 그 세대의 문제접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그 다음 세대를 이해하고 세대 간 연결고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성문영 기자(sung-goodnews@hanmail.net)



02 - 생태환경

03 - 지역소식·노인돌봄

04 - 미래금융

05 - 지역소식(홍천미술관)

06 - 유관기관·평생학습

07 - 인생칼럼·생활칼럼

08 - 수타사 신도회 집수리 봉사

08 - 복지관 소식



후원계좌 : 국민은행 313501-04-161305 농협 301-0084-3440-11 우체국 200238-01-006584

*보내주신 후원금(물품)은 기부금공제법 제 25조에 의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월정사복지재단
홍천군노인복지관

탄소중립이 만든 민둥산



홍천군 두촌면 일대(주변 지역 포함) 도로를 따라가다 보면 초록빛 들판과 푸르른 산들 사이로 갑자기 나타나는 흉흉한 모습의 민둥산을 보며 충격에 휩싸이게 된다.

산 중턱부터 산 아래까지 토양을 드러낸 채 말 그대로 완전히 발가벗겨진 모습이다.

왜 산의 나무를 다 베었을까? 궁금증이 폭발한다.

궁금한 마음에 산림청에 알아보니 전 정부에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에 맞춰 '오래된 나무'를 베어내고 그 자리에 어린 나무 30억 그루를 심어 향후 30년간 2,400만톤의 탄소를 흡수하겠다는 정책에 의해서 시행되었다고 한다.

산림청의 정책 핵심은 30~40년 이상 자란 나무는 성장이 더뎠고 탄소 흡수량이 현저히 떨어지므로 탄소 흡수량을 늘리기 위해서라도 오래된 나무를 베어내고 그 자리에 어린 묘목을 심겠다는 것이다.

노령화된 나무보다 벌채 후 새로운 나무를 심으면 연간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2배 정도 늘릴 수 있으며, 생산된 목재는 건축 및 가구 등 제재목으로 활용 시 50년 이상 탄소저장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에 산림청은 애초 탄소중립 정책을 위해 '탄소흡수력이 강한 숲을 만들겠다'며 벌목 필요성을 강조했다. 물론 베기와 심기를 통한 산림의 탄소흡수능력은 과학적으로 이미 검증된 것이라고 한다.

오래된 나무를 벌목해서 수익을 내고, 그 자리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시 나무를 심어준다는 산림청과 벌목업자들 말은 오랫동안 산에서 수익을 내지 못했던 산주들에게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아무리 사유림이라도 저런 식으로 산을 싹 밀어버리는 게 맞을까?' 하는 의문이 생겨서 알아보니 그것은 '산림도로의 부족' 때문이라고 한다.

산림도로(임도)가 없어 사람과 장비가 들어가지 못하니 슈아베기로 벌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작업자가 벌목하기 쉬운 산 아랫부분만 싹쓸이 벌목을 하며 목재를 채취하고 산 중턱 위로는 작업도로 임도가 없기에 벌목을 해도 나무를 가지고 내려오는 방법이 수월치 않아 산 밑부분만 싹쓸이 통째 깎아 산사태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면서 민둥산이 되었다는 것이다.

지난번 인터뷰한 임업후계자에게 다시 취재했다.

기자 : 왜 벌목을 산 밑부분만 하고, 산 위에서는 작업하지 않는 것입니까?

취재원 : 산 중턱이나 정상에 벌목하려면 임도가 있어야 작업이 수월합니다.

기자 : 임도는 무엇이고, 임도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궁금합니다.

취재원 : 임도는 임산물의 수송이나 산림의 생산 관리를 안정적으로 사용되는 도로이고, 벌목한 통나무의 운반을 목적으로 건설한 도로이며 특히 산불 발생 시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기자 : 그럼 임도를 많이 만들면 좋겠네요!

취재원 : 임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산림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고 부재산주(不在山主)가 많은 데다 임도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동의조차 받기 힘든 상황이며, 산과 산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개설해야 할 임도 노선을 불가피하게 바꾸는 예도 있다.

우리나라 임도 밀도는 1ha에 3.66m로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와 비교하면 7% 정도이고, 가까운 일본과 비교해도 4분의 1 수준에 그칩니다.

그렇기에 임도 부족 현상으로 벌목자들이 산 중턱에 벌목하지 못하고 싹쓸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도가 부족하지만, 벌목은 필요한 것이라 정부에

서 보조(국비 50%, 지방비 40%), 하여 10%는 산주가 부담하여 조립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산주에게 큰 이득이 없는데 왜 전국의 산림이 싹쓸이 되는 것일까? 이것은 바로 벌목작업의 타당성이 큰 몫을 차지하는 것이다.

숲은 여러 기능을 하며, 우리를 포함한 많은 존재에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산림은 그 자체로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고 휴양과 치유의 장소이다. 또 산림은 생물 다양성의 거점이면서 탄소 저장고이고, 물 저장고의 기능과 공기정화의 기능도 갖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 해결책으로 숲을 용도지역으로 구분해 관리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보호 산림'의 숲은 벌채하지 않고 생물다양성과 경관을 잘 보전토록 하고 '기후대응산림'에는 나무를 심고 가꾸고 수확해 목재를 공급하면서 '그린 카본'으로서 숲의 탄소 흡수 및 저장 기능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산불 예방 및 주된 나무의 성장을 위해서는 벌목이 꼭 필요하다. 하지만 작업하기 쉬운 곳만 작업하는 것은 탄소중립 정책과 어긋나므로 산 전체에 골고루 슈아베기를 통해 탄소중립에도 효과를 높이고, 산사태의 위험에도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일 것 같다.

홍천군 두촌면의 산은 모두베기(싹쓸이)보다는 슈아베기(간벌)로 나무들이 나무 빼곡하게 자란 곳을 적당한 간격을 두어 나무 상호 간에 경쟁을 완화해 나무의 성장을 촉진하고, 우량한 목재를 생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앞으로 더 강도 높고 체계적인 숲 가꾸기와 임도 등 산림 인프라를 닦아서 독일처럼 100년 숲을 가꿔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명국 기자(myungkook@hanmail.net)

지역소식

제6회 흥천신험 이사장배 흥천군 파크골프대회 개최

제6회 흥천신험 이사장배 흥천군 파크골프대회가 2022년 5월 21일 흥천군 파크골프장 A.B구장 18홀에서 10개 읍면 9개 클럽 선수, 임원 21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경기는 남녀 개인전, 단체전, 포섬경기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흥천신험(이사장 이일영)와 흥천군 파크골프회(회장 오병선)가 주관해 성대하게 열려 코로나 이후 일상회복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날 경기에는 많은 내외 귀빈 여러분도 참석하여 파크골프의 진수가 나올 때마다 박수를 치며 파크골프 묘미에 반하기도 했다.

대회 영예의 종합우승(단체전)은 갈마클럽(클럽장 정용득), 개인전 남자 1위는 갈마로클럽 정용득, 개인전 여자 1위는 갈마로클럽 정정숙 회원이 차지했다.

또한 단체전은 개인전과는 달리 포섬경기 1위는 부부클럽(오한돌, 김복화), 2위는 남산클럽(홍원섭, 김옥수), 3위는 한마음클럽(신건호, 정연희), 4위는 갈마로클럽(조영한, 정정숙), 5위는 무궁화클럽(박정남, 허남숙)이 각각 차지하며 많은 박수와 함께 시상금과 푸짐한 상품을 받았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경기가 취소 혹은 지연되던 중에 모처럼 신험 이사장배 대회를 통해 흥천군 파크골프인들이 잠시나마 활기 넘치는 하루를 만끽하고 또한 파크골프인들에 우정을 돈독히 다질 수 있는 하루였다.

■ 파크골프 (Park Golf)

파크골프는 공원+골프 = 파크골프의 합성어다.



◇파크골프대회 수상 모습.



파크골프는 일본에서 유래되어 국내에서는 1998년에 처음 시작되면서 현재는 파크골프를 즐기는 인구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파크골프는 도심의 공원 또는 유흥지에 조성하여 남녀 노인층 어린이 장애인 청소년 그 누구라도 접근이 용이하고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으며 여가시설 확대에 주민복지에 기여하게 되어 저렴한 실비 수준으로 과다한 비용 부담 없이 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되는 스포츠로서 세계적인 추세로 나아가고 있다.

파크골프 장점을 요약하면

1. 경제적으로 부담이 상당히 적다.
2. 파크골프 동호회에서 새로운 친구도 사귀고 팀플레이를 쉽게 할 수 있다.
3. 신체적으로 무리가 아주 적고 동작이 단순해서 어르신들도 쉽게 배울 수 있다.
4. 자연녹지환경으로 눈에 피로를 풀어 주고 유산소 운동을 함께 할 수 있다.

5. 모든 세대가 함께 참여할 수 있어 가족 화합을 이룰 수 있다.
6. 100세 시대 노인 건강에 좋은 운동으로 이미 세계적으로 비혼, 저출산 등이 확산되면서 전체 인구대비 노인인구가 많아지면서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는 추세에 정신질환, 우울증의 늪에 빠진 노인들과 노인 우울증 예방에 필요한 운동이다.
7. 우울증 예방에서 정신과 의사들이 가장 추천하는 방법 중 하나인 신체활동으로 이에 적합하다.

이제는 더 이상 코로나19도 정신 못차리고 도망쳤으니 우리 흥천군민 모두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라도 우리 각자가 짧은 시간을 투자해 도량도 치고 가재도 잡는 일석이조의 즐거운 삶을 영위했으면 한다.

파크골프에 대하여 자세한 문의는 010-4364-7966로 연락하면 된다.

안태수 기자(taesu9110@naver.com)

노인돌봄

협동화

어르신들과 함께 협동화를 만드는 치매예방 프로그램

어르신 치매예방 프로그램 중 하나로 어르신들과 함께 협동화를 만드는 프로그램이 있다.

협동화란? 어르신 각자가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여 완성한 그림을 하나로 모아 큰 그림 하나를 완성하는 형태이다. 다 완성되면 비로소 보이지 않던 거대한 그림이 보이게 된다. 어르신 한 분 한 분이 어떻게 색을 칠하는지에 따라서 같은 그림도 180도 달라지는 게 가장 큰 매력적이다.

해바라기 꽃. 협동화 도안이다. 여럿이 각자 나누어서 색을 칠한다. 누가 어떻게 색을 칠하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어르신 마음대로 색을 칠하여 하나로 합치면 어르신 개개인의 개성있는 작품이 만들어지게 된다. 즉 어르신 각자가 하나씩 나눠가지고 시작한다.

밑그림 채색을 빨리 시작하신 어르신께는 두 번째 장을 나누어 드린다. 천천히... 그리고 느리게 그리셔도 된다고 어르신을 응원한다.

해바라기의 앞은 노란색이지만 파란색, 빨간색 어



◇협동화 밑그림 작업



◇채색



◇완성된 작품

떤 색이든 좋다.

완성된 협동화 작품이다. 두 작품은 기본적으로 같은 그림이지만 전혀 다른 그림이 된다. 그림 하나하나를 또 하나로 합치고 나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근사한 작품이 탄생한다.

“어머~ 뭐야! 뭐야!”

멀리서... 완성된 작품 하나를 바라보고 물려드는 어르신의 표정이 너무 밝다.

“꽃에 점 하나를 찍은 그림이 바로... 내 것이라네”

“어머나 세상에! 오른쪽에 파란색을 넣은 그림이 자

네가 그린 것 맞지?”

어르신 각자는 자신의 그림이 이곳저곳에 전시되어 있는 모습을 바라보시고는 흐뭇하게 웃음을 지어 보신다. 본인이 정성을 다해 그린 그림 하나하나가 모여서 커다란 또 하나의 큰 그림이 만들어진 것에 대하여 신기하게 여기셨다. 이렇게 저렇게 어르신들은 또 하나의 멋진 작품을 완성하셨다.

이로써 오늘하루도 어르신의 정신건강을 지키게 되었다.

박경임 기자(akrruddal777@naver.com)

2022 서울 머니쇼; 재테크 박람회의 이모저모



◇ 2022년 서울머니쇼가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코엑스몰에서 열렸다.

2022년 서울머니쇼(Seoul Money Show)가 지난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간 서울 코엑스몰에서 열렸다. 올해로 13회를 맞이하는 서울머니쇼는 해가 갈수록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얻고 있다. 특히 금년의 행사는 코로나19의 방역이 완화됨으로써 오프라인 행사가 된 까닭에 더욱더 많은 인파가 몰렸다. 입장료는 5,000원이고 인터넷에 사전 등록한 사람은 무료로 입장 가능했다. 직장인들은 물론이고 주부, 은퇴자, 대학생들, 그리고 단체관람을 온 중고등학교 학생들까지 방문객들도 다양했다. 행사장의 열기와 방문객들의 뜨거운 관심을 보니 과연 아시아 최대의 재테크 박람회라 칭하는 것도 과장이 아니었다. 행사의 면면을 살펴보자.

행사의 메인은 단연코 3곳의 강연장에서 이루어지는 세미나였다. 개막 첫날 12일 기조강연은 배리 아이컨그린(Barry Eichengreen)이 열었다. 그는 미국 UC버클리 경제학과 교수로 2022년 글로벌 투자 환경의 변화와 향후 전망에 대해 명쾌하고 쉽게 청중들의 관심을 끌어 모았다. 이 외에도 이동원 하나은행 부동산자문센터장은 '앞으로 4년, 부동산 시장이 바뀐다'의 주제로 강연하였고, 이승원 미래에셋자산운용 본부장은 '내 노후를 위한 현명한 투자비법, 이제는 ETF 투자가 답이다'란 주제로 은퇴자나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꼭 와 닿는 재테크 설명을 이어갔다. 13일 둘째 날에는 엄명훈 키움증권 이사가 '불확실성 시대속 금(金)투자의 모든 것; 금테크로 돈 불리는 방법'의 주제

로, 오건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부장은 '인플레이션 중심으로 2022년 경제 이슈 돌아보기'를 주제로 강연하였다. 14일 마지막 날에는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가 '혼돈의 자산시장, 부의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란 주제로 강연하여 평소 비관론적 경제학자라는 평을 받아 한국의 '닥터 둠'이란 별명을 갖고 있음에도 오히려 낙관적 경제론을 펼쳐 청중들의 흥미를 끌었다. 김세호 길목부동산연구소 대표는 '아는 만큼 돈이 된다. 내 생애 짜릿한 대박상가 투자법' 주제로 강연하였다. 이두희 머니투데이 대표는 '억 소리 나는 NFT가 뜬다! 메타공즈와 디지털 자산의 미래'란 주제로 요즘 뜨거운 재테크 화제인 메타버스, 디지털 자산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었다. 이외에도 블록체인, 해외부동산 투자, 가상세계 투자 등, 재테크에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이 다루어졌다. 올해도 방문객들의 가장 뜨거운 관심분야는 부동산이었다.

행사장에 마련된 각 부스를 방문하는 것도 재미 있었다. 60여 개에 달하는 부스(booth)는 상담원들이 방문객들을 맞아 궁금한 재테크 관련 내용을 친절하게 상담해주었다. KB금융그룹을 비롯한 5대 금융지주사, 카카오뱅크 등의 인터넷 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의 금융기관, 교보생명 등이 보험사, 미래에셋증권 등의 증권사, 빗썸 등의 코인거래소, 복부인 같은 부동산 회사 등이 부스를 마련하고 있었다. 중고등학교 단체 관람객과 MZ세대

들은 위한 NFT특별관도 마련되어 있었다. 매경미디어그룹은 다양한 재테크 서적 및 잡지를 구비해 놓고 관람객들의 주목을 끌었다. 재테크 관련 서적들만 모아 놓은 도서 부스도 돌아볼만했다. 이들 여러 부스를 돌며 퀴즈를 맞히거나 부스가 내놓은 미션을 해결하며 얻는 사은품 및 선물들도 푸짐하여 방문객들이 결코 손해 보지 않는 장사라고 여기게끔 하였다. 에코 백을 비롯하여 수첩, 펜, 텀블러, 도서 등 방문객들마다 모두 한 보따리씩 선물을 챙겨가는 모습이 즐거워보였다. 행사장 곳곳에 숨겨져 있는 머니시스템프를 찾으면 이 역시 푸짐한 경품이 제공되어 방문객들로 하여금 자신의 관심 분야 부스뿐만 아니라 행사장 모든 곳을 둘러보게 되어 있었다.

팬데믹 이후 세계 경제 상황은 보다 더 불확실성 시대로 접어들었다. 많은 자산이 풀렸지만 풀린 자산은 결국 자산 양극화를 더 심화시켰다. 돈에 관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식도 많이 변화되었다. 돈이 모든 것은 아니지만 돈의 필요성을 인식했다고나 할까. 행사장을 가득 메운 여러 층의 인파가 이를 설명하고 있었다.

금융자산 전문가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자산의 활용은 이제 대한민국 모든 이가 그 필요성을 느껴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2022년 서울머니쇼를 보면서 느낄 수 있었다.

지역소식

홍천미술관

“우리는 평화·통일을 그리며 자유·평등을 꿈꾸는 민주세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홍천군협의회 청소년 꿈 담은 평화통일 그림전시 가족과 함께 즐기며 통일염원 새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홍천군협의회(회장 김금주)가 주최하는 제1회 청소년 평화통일 그림전시회가 열렸다. 민주평화통일내의 청년분과위원회가 주관하고 홍천군이 후원한 이 행사는 6월 10일부터 6월 26일까지 17일간 홍천미술관에서 진행됐다.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로 나누어 작품을 공모했고 응모된 그림 총 900여 점을 전시했다.

대한민국 모형도를 중심으로 전 세계를 향해 달리는 통일열차, 평화의 비둘기가 날개치고 무궁화가 만발하는 상상도(사진)가 대상을 차지했다.



주최 측에서는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입선자를 공개하지 않고 선정된 작품에 표식부착만 했다.

부모님과 함께 전시회를 둘러 본 한 초등학교 어린이는 “제1회 청소년 평화통일 그림전시회 현수막을 보고 우리 고장 홍천에도 미술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부모님과 함께 친구들의 그림을 감상하며 평화 통일된 대한민국을 상상해보게 됐다. 북녘의 청소년들과 교류부터 했으면 좋겠다.”며 감상소감을 말했다.

미술관을 찾아 그림을 감상하는 청소년들은 스마트폰으로 마음에 드는 그림을 사진에 담으며 즐거워했다.



행사를 주최한 김금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남과 북의 평화와 통일의 염원을 담아 이번 평화통일 그림 그리기 사업을 진행했다.”며 “홍천관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멋진 전시회를 갖게 되었다.”고 참여한 청소년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김금주 회장은 이어서 “이번 전시회에 그림을 응모

한 청소년은 그림을 그리면서, 관람을 한 청소년들은 감상을 통하여 전쟁 피해와 분단의 아픔을 되새기고 평화통일의 필요성을 함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김금주 회장은 “행사를 준비하고 주관하며 많은 노력을 한 청년분과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청년분과위원회 회원들이 우리 협의회에서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며 청년분과 위원들에게 각별한 애정을 표했다.

“코로나19에도 잘 견딘 미래의 주역들 평화통일 시대 역군 되도록 잘 길러야”

제1회 평화통일 그림전시회는 ‘평화 통일 자유 평등 민주주의 등의 주제를 담아 그리도록 했다’고 한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홍천관내 미래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이 평화의 소중함을 느끼고 통일의 염원을 되새기게 하는 기회로 개최했다는 전언이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청년분과위원회의 정해도 위원장은 “코로나19로 2년 간 위축되었던 청소년들에게, 평화통일의 그림전시회를 통해 참여의 경험을 선사하고 전쟁의 아픈 역사를 일깨우는 시간을 마련해 줬다.”면서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한 우크라이나 전쟁의 참상에서 보듯 전쟁은 참혹하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우리 청소년들이 평화의 소중함을 깨닫고 민족과 세계 속에서 평화의 역군이 되도록 돕고 싶다. 청소년들에게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행사기간 동안 미술관 전시회장을 지키며 관람객을 안내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홍천군협의회 행정실장이라는 분은 “제1회 전시회를 했으니 앞으로 전시회를 지속해 나갈 것이다. 청소년들의 참여 열기가 높고 전시할 수 있는 홍천미술관이 있어서 좋다.”고 말했다.

행정실장이 말 한대로 홍천미술관은 홍천 주민들의 문화생활을 고양시키는 문화의 산실이다. 홍천읍사무소로 사용되다가 홍천읍사무소를 이전하고 미술관으로 전용됐는데 조각전, 미술전 등 각종 전시회로 활용하기에 좋은 시설이다.

군 의회 건물을 옆에 둔 홍천미술관은 외부조형물과 정원수들이 내부에 전시된 미술 작품들과 조화를 이루며 안락한 휴식공간의 역할을 하고 있다.

홍천에서 나고 자랐다는 한 어른은 “어린이들이 고사리 손으로 그린 통일 염원을 보니 옛날의 어려운 시절이 떠오른다. 죽기 전에 통일이 되어 전쟁 위험 없이 북한동포와 문화생활을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



◇홍천미술관 전경



다. 홍천도 많이 발전하고 문화 수준이 높아졌다.”고 말하고, “행사를 주관하신 분들, 그림을 출품한 청소년들, 관람하러 온 모든 분들에게 감사한다. 홍천 주민부터 이렇게 어우러지는 것이 통일의 첫걸음 아니겠나?”고 만족해했다.

허남영 기자(hny1985@naver.com)

가족복지의 산실 홍천군가족센터

**다문화가정 포함 모든 가족형태지원
공동육아나눔터·요리교실 등 진행
결혼이주여성 중심 봉사단도 운영**

홍천군가족센터(센터장 김진홍)는 (사)홍천다문화가정후원회(회장 윤성일)와 함께 따뜻한 마음과 아름다운 사랑을 지역 주민에게 전하기 위해 2008년 개관 이후 2018년 2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통합되었다. 다문화 및 비 다문화 등 가족 유형별로 이원화 되어 있는 가족지원 서비스를 유형에 상관없이 한 곳에서 모두가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가족 간의 관계가 증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가족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편식 고민 해결을 위한 초등자녀 요리교실, 공동육아 나눔터, 아이 돌봄 프로그램에 다양한 대상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중이며 6월엔 가족 사랑의 날 ‘실버 볼 팔찌’ 만들기도 예정돼 있고 가족센터 프로그램 상시운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진홍 센터장은 “지역사회에 신뢰받고 지역과 상생하는 센터로 거듭나 홍천군민과 더불어 누구나 함께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언제나 열려 있는 소통의 센터이자 가족복지 전문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플라워공예반



◇결연단체 반찬봉사



◇목공예만들기



◇한국어교육_국적취득반

또한 홍천군 가족센터는 ‘다문화 나눔 봉사단’을 운영해 지역 봉사활동을 하면서 홍천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 거듭나는데 일조하고 있다.

나눔 봉사단(회장 김련화)은 홍천지역의 취약계층을 발굴하여 반찬 나눔, 주거환경개선, 김장봉사, 물품지원, 연탄 나눔, 지역축제 자원봉사 등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펼치고 또한 홍천지역 사회단체와 결연을 통해 활동 영역을 점점 넓혀가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김련화 회장은 “앞으로 나눔 봉사단원들과 함께 내

지역을 위해 보람찬 봉사를 하고 이주민이 아닌 당당한 홍천군민으로서 제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센터는 다문화 가족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한국어교육, 가족교육상담과 정보제공 역량강화 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통해 다문화가족이 한국사회에 빠르게 적응하고 사회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으로 홍천 군민들의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이복여 (boy1145@hanmail.net)

평생 학습

제3탄 노래와 함께 하는 인생은 아름다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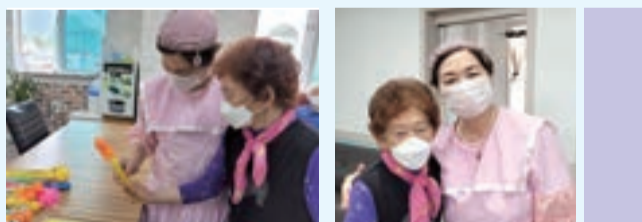
홍천군에서 진행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전문과정과 자격증 과정 등 지역 특성 및 군민 요구 조사가 반영된 20여 개의 특성화와 일반 강좌들로 구성되어 있다. 군민 누구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배움의 즐거움을 추구하고, 찾아가는 학습과정을 지원하고 있어서 군민들의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중 노래교실은 단연 인기다. 그도 그럴 것이 얼마 전 가수 임영웅이 무명 시절 노래교실 선생님들이 노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그 은혜를 갚기 위해 방송에서 노래교실 선생님을 언급한 바 있다.

홍천에도 고마운 노래교실 강사님이 있다. 지난 2년 여의 코로나 상황으로 모임이 어려웠던 평생학습 프로그램 중 올 4월부터 노래교실을 진행하고 있는 김봉희 강사님이다.

강사님은 홍천 장애인복지관과 경로당에 약 20년 동안 노래강사로 활동 중이시며 60대 초반의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소녀처럼 옷차림과 밝은 얼굴 표정으로 한분 한분 어르신 분들의 손을 잡고 맞이해 주셨고, 이날은 손뼉치기가 힘드신 어르신 분들을 위해 요즘 연예인 굿즈로 통하는 야광봉을 사비로 구입해 오셔서 노래 교실의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키신다.

김봉희 강사님은 노래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율동을 함께 알려준다. 부모님께 물려받은 코미디적 기질의 영향으로 열정적인 수업을 진행해 어르



◇김봉희 강사님의 수업 모습.

신들께 인기 노래교실로 인정받고 있다. 김봉희 강사님은 “노래와 함께 하지 않는 삶은 생각할 수도 없고, 코로나 시기에 노래 외의 일을 해봤지만 인생에서 노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다”고 한다.

매주 월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는 북방중앙교회 내 중앙노인복지센터에서, 화요일은 화천 작은 효도원에서 노래교실이 진행된다. 북방중앙교회 내에 있는 중앙노인복지센터는 매 주 월요일 오전 7시 50분부터 2대의 복지센터 차량으로 인근 마을 어르신을 모셔와서 2시간 동

안 노래교실을 진행한 후 점심식사까지 대접한다. 남 2명, 여 13명 총 15분의 어르신 분들의 참여도가 거의 100%인 노래교실로 알려져 있다.

오전 9시경 어르신이 복지센터에 도착하자 간호사 한 분이 혈압과 열 체크후 아침약 복용 여부도 세심하게 확인하였고, 복지센터에서 제공하는 약간의 간식드시는 티임을 가진 후에 노래교실이 시작되자 앉아서 야광봉을 흔들면서 아이들처럼 좋아하셨다.

특히 안금자 반장님은 작은 체구에도 노래 시작부터 계속 율동과 함께 신나게 춤을 추셨고, 앞드리고 계시다가 “안동역에서” 노래가 나오자 강사님 마이크를 뺏아서 노래를 완창하시고는 다시 자리에 들어가는 분도 계셨고, 2시간 동안 이어진 강사님의 열정적인 노래자락에 노래를 좋아하는 민족 정서에 걸맞게 잠깐의 행복 마취제를 맞은 듯 즐거워 하셨다.

코로나로 지쳐 있던 어르신들의 일상을 회복하고 생활 만족도 향상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보다 많은 군민들의 평생학습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어르신들이 건강이 허락하는 한 아픈 것도 잠시 잊은 채 노래에 열중할 수 있는 노래교실을 통해 아름다운 인생을 오래도록 영위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서행연 기자 (bonbon2202@naver.com)

인생칼럼



석도익
소설가

지계에 얹고 비좁고 가파른 산길을 올라 '설악산의 작은 거인'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그는 50년이 넘도록 설악산에서 지계 질만한 키가 160cm도 되지 않고, 몸무게는 60kg도 나가지 않는단다. 그런 그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마다 설악산을 오른다.

어떤 날은 가스통을 4개나 짊어지고 산을 오르기도 하고, 어떤 날은 80kg이 넘는 대형 냉장고를 통째로 짊어지

출 수 있으면 집안일을 거들기 위해서 아이의 키 크기에 맞게 지계를 만들어 주었다. 학교 갔다가 와서 소 풀을 베어 온다든가 땔나무를 해올 때 어깨를 짓눌렀던 것이 바로 이 지계였던 것인데, 어려서부터 지계를 썼기 때문에 성장판이 짓눌려서 키가 자라지 못해서 작다는 핑계를 대기도 했었다.

지계는 한국의 대표적인 운반기구 중 하나였다. 지계는 양다리방아와 더불어 우리 민족이 발명한 가장 우수한

곳으로 나르는 작은 차도 지계차라 부른다.

지계에는 우리 조상님들이 질곡에 삶의 애환이, 그리고 수없이 변화한 계절과 세월의 무게가 한 짐 가득 짊어져 있는 역사다. 우리는 지계 밑배에 튼튼한 어깨를 넣고 등태에 등을 밀착시켜 지계 작대기를 짊고 일어서서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왔고 또 앞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사람이 가장 무겁고 많은 짐을 몸에 무리가 가지 않고 목적지로 이동할 수 있는 최초의 기계가 지계이고, 이는 전세계 어디에도 없는 가장 자연과학적이고 인체공학적인 발명품이 우리나라의 지계일 것이다.

지금은 농사를 지어도 지계로 짊어 나르지 않으니 지계가 별로 쓰여지지 않는데다가 지계를 만들 수 있던 사람들도 줄어서 나무지계가 없어져 가고, 가볍고 예쁘고 날렵하게 알루미늄으로 공장에서 제작된 지계를 철물점에서 살 수 있다. 물론 버팀목인 지계작대기도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졌다.

우리 민족이 지계를 만들어 사용했기 때문에 외침의 혼란과 가난에서 삶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서도 오랜 역사를 굳건하게 지탱하며 여기까지 오게 된 버팀목일 것이다.

무거운 삶을 짊어지고 온 지계

지난날 설악산 대청봉을 오르면서 암벽을 만나면 밧줄을 잡기도 하고 계곡물을 뛰어넘으며 숨이 턱에 차고 기진맥진해서 간신히 걷고 있는데, 지계에 높게 짐을 짊어지고 빠르게 내 걸을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다.

이 험한 산길을 그것도 지계에 짐을 가득지고 비호같이 오르는 그를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바라보며, 경건한 마음까지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수십년이 흐른 지금에서야 그가 누군지 신문물을 보고서 알았다.

임기종씨는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는 설악산의 각 사찰과 암자에 필요한 물품을 지계로 운반해 주는 이른바 '지계꾼'이라고 한다. 사찰이나 암자에서 연락이 올 때마다 주문한 물품을

고 산을 오르기도 한다. 그가 받는 배달 값은 한 달에 150만 원 남짓이지만 30년 가까이 품삯을 모아 1억 원 이상을 이웃을 돕고자 기부한 설악산에 마지막 지계꾼 임기종(63)씨는 생계 때문에 시작했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지계를 지는 일이 생활의 한 부분이 돼 그만둘 수 없게 됐다."고 한다.

그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늘 함께한 것은 지계다. 지난날 우리나라 농촌에는 집집마다 남자의 숫자만큼 크고 작은 지계를 흔하게 볼 수 있었다. 남자 아이가 태어나서 어느 정도 자라 힘을

연장 중 하나이다. 처음에는 '지개'로 불리다가 현재의 지계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지계는 6·25전쟁 때 매우 요긴하게 쓰였다. 산꼭대기의 진지에 일반인들이 식량·탄환 따위의 보급물자를 지계로 져 나르던 것이다.

미군들은 이 지계를 A자 모양의 틀(A frame)이라고 이름지었다고 한다. 또한 물지계는 농가의 지계와는 형태와 기능이 전혀 다르다. 다만, 지계처럼 등으로 져 나르기 때문에 이렇게 부른다. 물품 하역장 같은 데에서 무거운 짐을 들어 올려 차례로 쌓거나 다른

생활칼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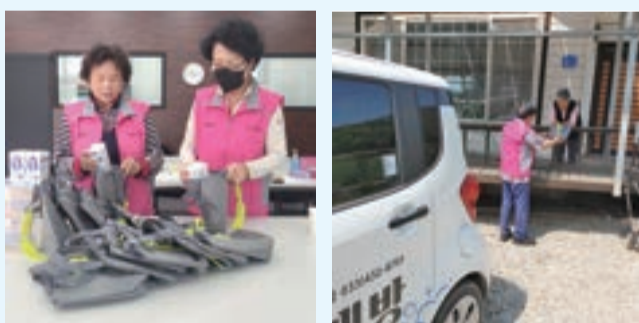
행복나눔 빨래방을 통한 나눔 이야기 “취약계층 우유배달”

며칠 전부터 행복나눔 빨래방 업무 중 하나로서 도움이 필요한 복지사각지대 이웃에게 우유배달 업무를 시작했다.

우유배달 서비스는 행복나눔 빨래방 서비스 혜택을 제공받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신체적 제약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생필품 구입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이웃들에게 매일 한 팩의 우유라도 마음 편히 드실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나눔 활동이다.

우유를 가가호호 방문 배달하는 업무는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인 논리로 따져보았을 때 매우 소모적인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취약계층을 직접 방문하여 이웃의 생활환경이나 건강상 어려움을 눈으로 확인하고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매우 효과적이고 능동적인 돌봄 서비스라고 생각한다.

우유배달 첫날, 명단리스트를 부여받고 어르신 댁 주소지를 찾아가느라 애를 먹었다. 차량에 달려 있는 내비게이션과 휴대폰 앱을 총동원하여 어렵게 찾아다녔다. 저소득 취약계층 어르신이 살고 계시는 주거지는 도로 곳곳이 미로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는 지역이 많아서 어르신 댁을 쉽게 찾을 수 없었다.



◇우유배달 업무를 하고 계시는 어르신들.

어르신 댁에 힘들게 찾아가다 보면 사전에 우유배달에 대한 귀찮음이 있었는지 반갑게 맞이해 주신다.

꼬불꼬불 길을 몇 차례 다니다 보니 이제는 어느덧 어르신 댁에 쉽게 찾을 수 있게 되어 마음 편히 어르신 주변을 살필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어르신 댁 앞에서 초인종을 눌러도 아무 대답이 없는 경우가 존재한다. 집 대문을 수차례 두드리고서라도 어르신 안부를 확인한다. 특히 거동불편 어르신은 곧바로 현관에 나와서 우유배달 담당자를 마주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럼에도 어르신이 댁에 계시는 경우 어르신 개인 신상에 대한 확인이 쉽고, 잠시 잠깐이나마 어르신과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여유가 있어 한결 편안하게 진행된다. 어르신께 배달된 우유는 매일 빠짐없이 잘 드시고 계신다며 소화도 잘 되고 맛도 좋다며 어르신께서 담당자인 나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해 주실 때에는 보람을 느낀다. 외출중이신 어르신이라도 다시 한번 확인한 후에 문고리에 우유가방을 걸어 놓고 돌아서며 우유배달일지에 OK표시를 하고 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다.

하나의 대문 안에 들어섰을 때에 다닥다닥 방 한 칸씩 사용하고 있는 한 지방 다세대 주택을 방문했을 때의 기억은 아직까지도 내 머릿속에 짙은 느낌으로 남아 있다.

삼삼오오 모여 계신 어르신이 나무그늘 아래에서 쉬고 계시는데 어르신 한 분께만 우유가방을 전달해 드리고 돌아서게 되면 뭔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어색함을 느낄 때가 많다. 선택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없는 선택적 어려움이 머릿속에 빙빙 맴돈다. 어쨌든 점점 더 많은 어르신 분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으며 사소한 이익 하나 때문에 어르신이 주변 이웃과의 화목을 깨뜨리는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박호관 기자(hokwan-park@daum.net)

수타사 신도회 집수리 봉사

홀몸어르신 가구 및 주거취약계층 19가구 맞춤형 봉사 전개



◇홍천읍 집수리 봉사

대한불교조계종 수타사(주지 화광 스님)와 수타사 신도회(회장 오승훈)는 최근 신도들이 동참한 가운데 홍천관내 복지사각지대 및 주거 취약가구를 추천 받아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을 펼쳤다.

수타사 신도회는 사회복지법인 월정사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홍천군노인복지관(관장 현운재)과 연계해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저소득층 및 홀몸어르신 가정 중 19가구의 주거취약가구를 대상으로 도배 및



◇내촌면 집수리 봉사

장판교체, 욕실과 보일러 배관 등의 맞춤형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6월 22일 현재 19가구 중 홍천읍 1가구, 화촌면 1가구, 두촌면 3가구, 내촌면 3가구 등 총 8가구는 집수리 주거환경개선을 마무리했으며, 서석면과 영귀미면 및 홍천읍 11가구는 오는 7월까지 지속적으로 전개해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현운재 관장은 "어르신들의 주거환경개선에 앞장



◇두촌면 집수리 봉사

서 준 수타사와 수타사 신도회에 감사하고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돌봄에 있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승훈 회장은 "어르신들이 좀 더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힘쓴 수타사와 신도들께 감사 드린다"면서 "수타사 신도회는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문화 확산과 복지보장체계가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복지관 소식

홍천군노인복지관 '만원의 힘' 이경숙 후원자

이경숙 후원자 『대통령상 수상 기념 쌀 340kg 후원』



홍천군노인복지관 만원의 힘 이경숙 후원자께서 지난 5월 27일부터 5월 29까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한국음식의 관광자원화와 한식 세계화를 위해 열린 "제23회 한국음식관광박람회 한국국제요리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였다.

홍천의 5대 명품 중의 하나인 홍천인삼과 귀리 등 잡곡을 섞어서 만든 요리로 전국대회에서 큰 수상을 했다.



이경숙 후원자는 현재 홍천군 영귀미면에서 '홍천인삼 떡마을 이경숙' 떡집을 부부가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 대한민국 향토식문화대전에서 통일부장관상, 21년 서울서 열린 대회에서도 통일부장관상, 홍천지역 축제인 단호박축제 대상 등 전국과 지역행사에서 음식 솜씨를 인정받고 있다.

"이번에 열린 한국음식관광박람회를 참여를 준비하면서 응원해 주신 지역주민들과 기쁨을 함께 나누고,



지역사회 나눔을 실천하고자 홍천군노인복지관에 쌀 340kg을 후원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홍천군노인복지관 현운재 관장은 "따스한 손길로 지역소외계층을 보살피고, 지역복지발전을 위해 직접 실천해 주고 계시는 후원자께 감사하다. 앞으로도 홍천군노인복지관은 지역사회 복지발전을 위해 꾸준하게 노력하겠다."라고 전하였다.